

삼표가 GREEN 세상

계간 <삼표가 GREEN 세상>은 삼표그룹의 기업철학과
사우들의 이야기를 담는 사내보입니다. 비매품.

삼표가 GREEN 세상

2019 Autumn • September • October • November
Vol. **64**



SAMPYO

(주)삼표 0315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5층 / 02-460-7111

Theme Prism | 워크 스마트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7가지 방법 **Talk & Talk** | 취임 인터뷰 삼표산업 레미콘사업부문 이선호 대표이사

Hot Issue | 신제품 출시 특수 몰탈 '삼표 무수축 그라우트'



새로움의 기초가 되다

당신의 '위라벨' 온전히 누리길

하늘 높고 푸른 늦가을 짙푸른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은 하늘 아래 멀리 산아는 울긋불긋 가을 웃으로
갈아입고 겨울을 견딜 채비를 한다. 온 듯하더니 벌써 지나가아가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아쉽고 안타까운 계절이다. 직장인 역시 허송하기 아까운 시간을 매일 겪는다.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된 지 15년 만에, 이번에는 '위라벨'이 화두가 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소모하는
시간'이라는 양적 배분이 아니라 '즐거는 시간'이라는 질적 조화여야 한다는 것. '소비'와 '투자'는 누앙스가
전혀 다른 법이다. 측량하기 어려운 푸른 하늘과 같은 청아(淸雅)한 삶을 누리길 바라며.

©Getty Images

CONTENTS



04	Theme Prism ❶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7가지 방법	22	Spotlight 고품질로 업계 선도하는 삼표시멘트
08	Theme Prism ❷ 퇴근 후에 뭐 할까? 영화는 위라벨 지침서	26	Talk & Talk 이선호 삼표산업 레미콘사업부문 대표이사 인터뷰
10	Case Study 건축 탐방: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일터	28	Focus 삼표그룹 풋살 동호회 '블루풋' 정기 모임 방문기
14	삼표 ❶ 느슨하게 오래? 집중 근무제로 몰입해서 열려!	32	삼표 네트워크 "풍광명미의 도시 포항을 느껴보세요"
16	Hot Issue ❶ 특수 몰탈 '삼표 무수축 그라우트' 신제품 출시	34	Photo Event 미소를 부르는 소중한 추억, 나의 어린 시절
18	Hot Issue ❷ 고성능과 사용 편의성 모두 만족시킨 무수축 그라우트	36	언론에 비친 삼표 ❶ 이데일리 레미콘업계, 4차 산업혁명 '잔결음'
20	Hot Issue ❸ 무수축 그라우트 기술 세미나 "좋은 제품으로 점유율 확대"	38	언론에 비친 삼표 ❷ 강원일보 삼척 생활 쓰레기 매립량 하루 40톤 줄어든다
		40	SP News
		46	삼표인 소식
		47	Quiz & Notice

삼표가 GREEN 세상

Quarterly Sampyo
Membership Magazine
2019 Autumn Vol. 64

계간 삼표그룹 매거진
2019년 가을호, 통권 64호
2019년 10월 23일 발행
www.sampyo.co.kr

발행인
이오규

편집인
송석훈

기획·진행
김미미

발행처
(주)삼표 홍보팀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4층
02-6270-0768

제작
(주)가이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20
02-317-4921

NOT FOR SALE

분기별로 발행되는 <삼표가 GREEN 세상>은
삼표그룹의 기업철학과 사우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내보입니다. 비매품.

<삼표가 GREEN 세상>에 실린 모든 콘텐츠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지합니다.
Copyright©Sampyo All rights reserved.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7가지 방법 직장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명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의하면 사람을 지탱하는 힘은 ‘사랑’이다.
그렇다면 직장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일과 삶 모두
중요한 현대인에게 필요한 7가지 덕목을 간추렸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직장인이 늘면서 ‘스마트 워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똑똑하게 일하기, 오래 일하지 않기, 제대로 쉬기가 그것이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고용노동부도 2017년부터 ‘일·생활 균형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근로자는 능력을 발휘하고,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자는 의도다. 일과 삶 모두 챙길 수 있는 7가지 방법론을 제시한다.



Tip 1

업무 효율을 높여라

“시간을 잘 계획하고, 꼼꼼하게 분류해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는 일상의 원칙을
지킨다면 하루 동안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일할 때 빈둥거리거나
허둥대면 성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 규칙만 지킨다면 다른 사람이 일주일
걸려 할 일도 하루 만에 할 수 있다.”

—토마스 미첼, 〈삶에 대한 에세이〉

직장인이라면 의사 결정 과정의 지연,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장시간 근무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스웨덴에서 무조건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은 ‘비효율’과 동의어다. 일의 양 대신 질에 초점을 맞춰 균형을 찾자. 아주 간단하다. 업무 시간에 수다를 떨거나 쇼핑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것. ‘양극단 사이에서 적당하게’라는 말을 제목에 붙여 〈라곰 라이프〉를 펴낸 스웨덴 작가 안나 브론스에 의하면 성과는 결코 업무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녀가 추천하는 능률 향상 비법 세 가지는 이렇다. 첫째, 멀티태스킹을 줄여라. 둘째, 고민을 줄이고 행동하라. 셋째, 우선순위를 정해라.



회의 일정표를 만들자.
시작에서부터 휴식, 식사, 의견 나눔,
정리까지 5분 단위로 예정을 짜 사전
공지하는 것이다.”

Tip 2

휴식도 일의 연장이다

“훌륭한 사람에게만 있는 뛰어난 자질은 쉬는 능력이다. 근심, 휴식 없는 생활,
초조함은 나약함의 상징이다.” —J.R 실리

통신과 SNS의 발달로 휴가 기간에도 일하는 현대인이 많다. 심지어 휴가 중에 (업무)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사회학자들은 일과 완전히 떨어져 휴식을 취하는 것을 ‘분리’라고 칭한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장인에게 분리는 필수다. 심신 에너지를 회복하지 못하고 피로가 쌓이면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고 실수하게 된다. 〈일만 하지 않습니다〉의 저자 알렉스 수정 김방은 현대 직장인은 2~3주일의 휴가를 가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녀온다 해도 산더미같이 쌓인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된다고 말한다. 직원의 스트레스는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이직률을 높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조차 대처가 필요하다. 시간 외 업무를 지양하는 기업 문화 정착, 자유로운 연차·육아 휴가 사용 등의 환경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는 알렉스는 성공을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노력과 1만2500시간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외친다. 의도적 휴식은 창의력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OFF학〉의 저자 오마에 겐이치는 일하는 ‘ON’뿐 아니라 휴식인 ‘OFF’도 연간 계획으로 미리 세우라고 제안한다. 여름·겨울 휴가 그리고 월 단위로 각각의 주말에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하는 것이다. 시간과 돈을 배분하는 계획적인 휴가는 활력을 늘리고 피로는 줄일 수 있다.

Tip 3

회의 일정표를 만들자

“일간, 주간, 월간 회의는 심각한 시간 낭비 요인이다.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시간을 아끼는 수단이 된다. 가령 회의를 통해 부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법을 모색하면 부서원들이 따로 고민할 때보다 빨리, 더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젠 예거, 〈7일, 168시간〉

회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회의는 필요하다. 필요한 회의만 효율적으로 한다면 모두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회의 안건을 사전에 공유하고, 과도한 보고서 작성을 자제해야 한다. 30년간 시간 관리를 연구한 사회학자 젠 예거는 꼭 회의 일정표를 만들라고 조언한다. 시작에서부터 휴식, 식사, 의견 나눔, 정리까지 5분 단위로 일정을 짜 사전 공지하는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회의 후에 다른 중요한 일정은 잡지 말자. 공식 회의가 끝나고 편안한 자리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영화는 워라벨 지침서 퇴근 후에 뭐 할까?

‘워라벨’이 화두다. ‘소확행(小確幸: 작지만 확실한 행복)’과 한 쌍이다. 그런데 일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퇴근 후 삶이 따로 없었던 사람은 “워라벨에서 ‘워(Work)’는 잘할 자신이 있는데 ‘라(Life)’가 더 어렵다”고 말하기도 한다. 영화를 보면서 영감을 얻기를 권한다.

업무 효율을 높이고 삶의 여유도 되찾자는 취지의 워라벨. 하지만 관심사는 없어진 지 오래고, 즐길 만한 취미조차 마땅치 않다는 사람도 있다. 돈 아니면 시간을 핑계 대고, 술 아니면 잠으로 때우는 무미건조한 여가. ‘다음 생애나’ 율조리기엔 못내 억울하고 적잖이 한심하다. 말 잘하는 전문가들은 ‘운동화를 신어라’ ‘여행을 떠나라’ ‘차라리 멍을 때려라’ ‘이래리저래라’ 상식처럼 조언하지만, 사는 게 마음 같았으면 그런 고민은 애당초 하지도 않았을 테다.

웹툰 <미생>의 윤태호 작가는 작품 속에 이렇게 썼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찰

리 채플린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윤태호의 ‘지옥’ 말고 채플린의 ‘희극’을 희망한다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노오력’해야 한다.

우리가 만나온 영화들은 (회사의) 일과 (개인의) 삶의 조화로운 공존, 그 균형 잡힌 여생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며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준다. 참고할 만한 흥미로운 ‘탄점들’에서 영감을 얻고 실천에 나선다면 금상첨화.

음악 영화가 등장인물의 취미로 가장 자주 써먹은 건 역시 예능. 그중에서도 음악 분

야다. 도시의 쳇바퀴 생활에서도 잠시 잠깐씩, 그렇지만 꾸준히, 게다가 즐기며 만족할 수 있는 인간 본연의 흥을 (재)발굴하기에 ‘딱’이기 때문이라. <즐거운 인생>이 알맞은 사례다. 되는 일 하나 없이 스트레스만 쌓여가던 아저씨들이, 대학 동창의 돌연사를 계기로 다시 뭉쳐 음악을 시작한다. 틈틈이 합주하며 과거의 회의를 되찾은 그들이 죽은 친구의 아들을 설득해 록밴드를 결성하고, 콘서트까지 성황리에 치르면서 인생의 환희를 재경험한다는 내용.

처자식 먹여 살리고 회사에 충성하느라 압박한 정년퇴임까지 꿈을 포기해야 했던 중년의 직원들이 직장인 밴드를 통해 유

쾌한 반란을 일으키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도 유사한 메시지를 담았다.

TV 시청이 유일한 낙이었던 구청 생활공해팀 7급 공무원이 충간소음 때문에 맞닥뜨린 인디밴드와 우여곡절 끝에 음악으로 공감한다는 내용의 <나는 공무원이다> 역시 월급쟁이들의 흥겨운 일탈을 자극한다.

레저·스포츠 이 또한 결핍과 공허를 채우기에 적합한 취미. <셀 위 댄스>의 모범 셀러리맨 야쿠쇼 코치는 사교댄스 교습소 창가의 여인을 발견한 뒤 미묘한 생명력을 느끼며 춤의 세계로 들어선다. 부부 관계의 진지한 성찰, 순수한 열망의 발견을 깨닫게 하며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이제는 고전 명작이라 할 만한 <호르는 강물처럼>에서 브래드 피트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배운 플라이 낚시를 통해 인생의 본질, 가족의 영향, 관계의 방법론을 서정적으로 은유해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았다. 실제로 영화를 보고 플라이 낚시에 입문한 사람이 적지 않다는 후문.

<오버 더 펜스>는 타자가 친 공이 외야와 관중석 사이의 울타리를 넘는 것을 뜻하는 야구 용어로 제목을 지은 영화다. 오다 기리 쇼는 일만 하다 죽는 것이 자신의 남은 생이라며 체념했지만, 아오이 유우를 만나면서 사랑할 동력과 살아갈 의미를 되찾는다. 영화의 중요한 메시지는 그가 직업훈련 학교에서 목공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하는 사회인 야구를 통해 드러난다. 꼭 한 번이라도 담장을 넘겨보고 싶은 화심의 폴스윙.

왕년에 잘나갔지만 한물간 중년들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담은 버디무비 겸 로드무비인 <7천 녀석들>은 바이크 라이딩 욕구를 부채질한다. 치과 의사 팀 알렌, 돈 많은 존 트라볼타, 아내의 등쌀이 지겨운 마틴 로

1 낚시는 대를 이어 소통하고 물려줄 수 있는 취미 중 하나다. <호르는 강물처럼>에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낚시를 가르치는 장면.
2 <엑시트>의 주인공들은 대학 시절 산악 동아리에서 익힌 등반 기술로 재난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렌스, 여친 하나 없는 소심남 윌리엄 H. 머시는 주말마다 도심을 벗어난 투어링을 만끽한다. 휴대폰도 버리고 탈출한 일상의 자유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매우 자유롭다.

전원생활 삶의 숨통을 틔우고 새로운 모색을 위해 호젓한 전원생활을 택한 이들을 담은 영화라면 (동명의 일본 작품을 리메이크한) <리틀 포레스트>가 제대로다. 시험과 연애와 취업 모두가 쉽지 않아 고뇌하던 김태리는 고향으로 내려와 엄마가 방치하고 떠난 집에서 지내며 소소한 농사를 시작한다. 직접 키운 농작물은 하나둘 늘어나고, 그렇게 봄·여름·가을·겨울을 자급자족으로 보내며 옛 친구들과 교감한 뒤 새봄과 함께 회복의 심기일전으로 나아간다. 그녀가 마주한 휴식의 느긋함과 복원된 에너지는 관객들도 함께 위로하고 성장시켰다.

생존을 위해 감자 톳밭을, 그것도 화성(Mars)에서 가꾸며 살게 된 맷 데이먼의 SF <마션>도 흥미롭고 독특한 설정으로 농업의 묘미와 긍정의 마인드를 일깨웠다. 좌절 금지 희망 고수의 표본이다.

취미와 부업 취미를 발전시켜 삶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킨 소재들도 재미있다. 대학 시절 산악 동아리에서 갈고닦은 암벽타기, 로프 기술, 구조 신호 등 서바이벌 능력을 심분 활용해 도심 재난을 극복한 조정석과 임윤아의 <엑시트>는 900만 관객을 훌쩍 넘어섰다. 무시당할 취미, 부정당할 재능은 없으며, 도리어 위급 상황에서 유용한 필살기가 될 수 있음을 코믹하게 전달한 덕이다.

최근 개봉한 <나쁜 녀석들: 더 무비>는 감방 생활에서 숙련한 재봉틀 기술로 오프닝부터 큰 웃음을 줬는데, 마동석의 재봉틀 사랑이 장기용에게로 이전된 엔딩 장면이 반전의 여운을 남겼다.

본업보다 부업이 더 강렬했던 영화라면, 많이들 알다시피 <극한직업>이 대표적이다. 마약반 형사 5인방이 범인 검거를 위해 위장 개업한 치킨집을 통해 ‘대박’을 친다는 이야기는, 영화 밖 현실로도 이어져 갈비탕 통닭집이 문전성시를 이룬 케이스다. 낮에는 통닭 장사, 밤에는 잠복근무. 다르게 생각하면 더 좋은 길이 보일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1600만 관객과 소통했다. **5**

워라밸 사무 공간의 건축 설계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일터

건축은 자연스럽게 그 공간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규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건축 설계 및 인테리어 디자인을 통해 자신의 업역(業域)에 적합한 업무 공간을 피하기도 한다. 창의성을 중시하는 몇몇 기업의 사무실을 엿보자.



‘워라밸’이 모두의 화두다. 워크-라이프 밸런스(Work-Life Balance), 즉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개념인 워라밸이 담겨놓고 일과 삶 사이의 지분 조정을 통한 균형 맞추기라고 생각하기 쉽다. 만성적으로 ‘저녁이 없는 삶’에 시달리다 보니 일의 비중을 줄여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삶의 균형이 맞고 더 나아가 질이 높아질 것이라 희망을 품는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일의 밀도가 너무 높다거나, 한술 더 떠 업무 환경이 사람을 받쳐주지 못하면 기껏 시간을 확보해놓고도 무엇인가를 좇고 싶은 욕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진정한 워라밸은 바람직한 업무 환경의 조성에서 시작된다.

워라밸이라는 개념이 물 위로 떠오르기 전부터 건축을 통해 바람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제안 및 진화해왔다. 건축 설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스웨덴의 디지털 마케팅 회사 DLG의 워크 스테이션(Work Station), 소규모 미팅이나 개별 업무 공간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2** DLG는 사무실 창가를 융통성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3** 격식을 차린 리셉션 대신 누구나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했다.

건축 설계의 기초 원리

첫 번째는 적절한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과 분리다. 일터는 기본적으로 공적 공간이지만 매일 출근해 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정 수준 사유화된다. 따라서 최소한의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의 구분과 더불어 사적·공적 공간 사이의 자연스러운 전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혹은 그렇지 않은 동선이다. 사무 공간 내·외부를 이동할 때의 효율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동선이 좋고, 즉 이동 거리가 짧고 편하다고 무조건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 건축 설계와 인테리어 디자인 과정에서 따로 고민 및 고려하지 않을 경우 밀폐된 환경 속에서 움직임이 제한된 채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동선이 일종의 리프्रेस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공간 자체의 설계는 물론 마감재의 색이나 재질 등을 다양화하는 의식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자연과의 적절한 거리 조절이다. 원래 건축은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발전돼왔지만 요즘은 선을 넘어 '생산 효율을 위한 기계'로 전략해 버린 경우가 많다. 자연광이 전혀 들어오지 않으며 공조(공기조화) 또한 기계에만 의존하는 거대한 유리 상자 말이다. 이런 건물은 내부가 온실처럼 뜨거워진다가나, 피부가 일어나고 목이 따가울 정도로 공기가 건조하

고 질이 떨어져 업무 효율을 도리어 떨어뜨린다. 따라서 요즘은 통상적인 자연광의 유입이나, 기계에 의존하지 않는 공조가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다. 덧붙여 눈에 피로를 덜 주는 조명 또한 중요하다.

마지막인 네 번째는 도시 환경 맥락과의 관계 맺기다. 외따로 떨어진 개인주택도 아닌 사무용 건물이라면 개별적이기보다 도시 환경이라는 맥락 속에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환경에 이로울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건축적인 고민이 깊어야 한다. 가장 흔한 예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기 위한 바탕 시설인 탈의실과 샤워장이다. 석유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활용을 전(全)도시적 차원에서 권하는데 정작 활발한 신체 활동 이후의 땀이나 샤워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참여를 줄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건물 사용자는 물론 도시와 사회 전체의 맥락에서도 손해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보, 철재나 목재 등의 재활용 자원을 활용한 시공 등도 크게 보아야 범주에 속한다.

융통성과 효율이라는 중용

이러한 기본 개념에 더해 요즘은 IT를 비롯한 기술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업무 환경의 조성이 워라밸의 필수 요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AV 매거진>의 2019년 5월 설문 조사에 의하면 효과적인 업무를 위한 환경 조성에 가장 중요하게 꼽힌 것은 '일거리의 위치 및 방법 선택의 자유'(35.8%)였고, 그 뒤를 이은 것이 '효과적인 기술'(28.6%)이었다. 여기에 별도 문항(일터에서 경험하고 싶은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에서 응답자들이 '다양한 업무 공간의 구비'(38.4%)를 꼽았다는 사실까지 감안한다면 결국 자율 출퇴근에 IT, 특히 모바일을 적극 맞물려 융통성을 추구하는 업무 환경이 최선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봤듯, 융통성을 추구하는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의 구분과 분리가 가능한 공간이 수시로 자율 선택이 가능한 완전히 열린 공간보다 나을 수 있다. 즉 각자 일하는 자리를 매일 아침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 열린 공간이 최선이라는 말은 아니다. 업무 규모에 따라 개인에서 팀, 부서 등으로 커진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적절한 크기의 회의실 같은 중소 규모의 다목적 공간이 일터에서 가장 필요한 공간일 확률이 아주 높다.

업무에 걸맞은 동기부여 공간

이제 기본 개념과 요즘의 건축적인 요건을 만족하는 사무실 공간 실례를 살펴볼 차례다. 첫 번째 사례는 슬랙(Slack)의 샌프란시스코 본사 공간이다. 업무용 메신저 개발 회사인 슬랙은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미국 서해안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의 환경, 즉 그곳의 자연을 디자인에 적극 반영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부터 워싱턴주까지를 망라하는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은



1, 2 슬랙 본사의 라운지. 손님들 맞이할 때나 소규모 미팅에도 사용 가능하다. **3** 사무 공간 디자인에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의 자연 환경을 반영했다. **4** 영화 상영 등 문화 행사에 이용할 수 있는 강당. **5** 스포티파이 스토커를 지사의 다용도 공간. 평소에는 탁구를 즐길 수 있고, 탁구대를 접어 치우면 소규모 강연이나 행사에 사용할 수도 있다. **6** 입구와 라운지에는 식물을 많이 배치했다. **7** 카페 겸 휴게 공간.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미팅도 가능하고 노트북을 가져와 일해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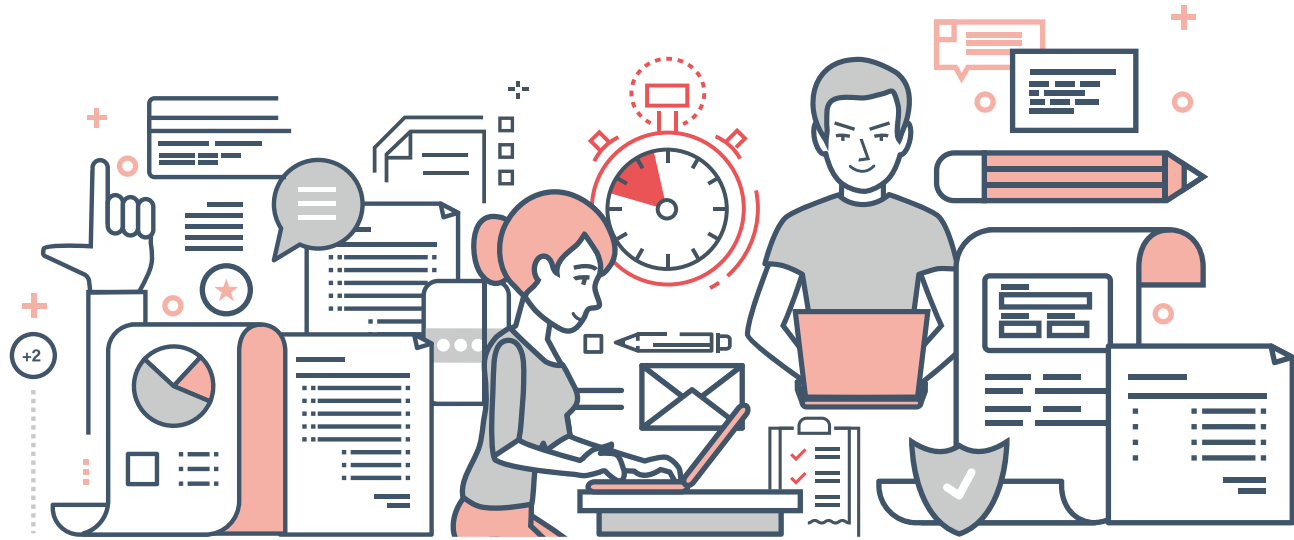
사막, 숲, 산 등의 다양한 환경을 품고 있다. 슬랙은 이 각각의 환경을 각 층에 구현해 자연을 닮았으면서도 느낌이 사뭇 다른 공간을 조성했다. 전반적으로는 목재를 바탕으로 깔고 천 소재의 가구로 편안함을 증폭시킨 뒤 철재로 균형을 잡아준다.

두 번째 사례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인 스포티파이(Spotify)의 스톡홀름 지사 공간이다. 스포티파이 또한 슬랙과 흡사하게 목재로 바탕을 깔아 자연과 편안함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가운데 가구나 장식물을 통해 생생한 색채를 불어넣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선을 추구한다. 덕분에 궁극적으로는 북유럽의 감성을 제대로 담은 일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했다.

마지막 사례는 스위스 제네바의 디지털 마케팅 회사 DLG(Digital Luxury Group)의 사무실이다. DLG는 사무실 느낌을 덜어내기 위해 당연히 갖춰야 할 것 같은 리셉션 공간을 없애는 한편, 융통성에 초점을 맞춰 집중만큼이나 편안함을 좇을 수 있는 일련의 소규모 사무 공간을 구비했다. 또한 팀 단위의 업무가 원활하도록 다양한 회의실도 갖췄다. 역시 목재와 천이 조화를 이루지만 앞선 두 사례에 비하면 좀 더 미니멀하고 밝으며 우아하다. **8**

‘칼퇴’의 필요충분조건 집중 근무제 느슨하게 오래? 몰입해서 얼른!

회의를 통한 집단지성의 힘은 물론 강력하지만,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야 효율을 높이고 개인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삼표그룹이 시행하는 ‘집중 근무제’는 궁극적으로 ‘워라밸’을 향한 ‘워크 스마트’의 방법론이다.



❶ 건강한 삶은 건강한 회사에서

늦은 저녁 불 꺼진 사무실에서 탁상조명에 의지해 홀로 일에 몰두하는 회사원. 한때 드라마와 광고에서 그려냈던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의 표상이었다. 누군가는 그처럼 열정 넘치고 멋있어 보이는 드라마 속 직장인을 꿈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다. 정시에 퇴근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조직건강도 및 일하는 방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77%가 글로벌 평균 대비 조직건강도가 저조한 수준이다. 조직건강도는 리더십, 업무 시스템, 혁신 분위기, 책임 소재 등 조직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제



↑ 그룹웨어 ‘삼표블루생’에 접속하면 팝업으로 표출되는 집중 근무제 안내.

반 사항을 포괄한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 상습적 야근과 비효율적 회의 등 구시대적 업무 행태가 조직건강도를 낮추고 결국 구성원의 삶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회사는 조직건강도를 높이기 위해 야근을 지양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고민했고, 구성원은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따르며 워라밸을 보장받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삼표그룹도 워크 스마트(Work Smart)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 호에 소개한 네 가지 조직문화 개선책 중 하나인 집중 근무제를 좀 더 소상히 알아보자.

❷ 워라밸의 초석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를 집중 근무시간으로 지정해 다른 방해 없이 자신의 고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집중 근무제다. 이 제도는 임직원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었다. 그룹 차원에서 실시한 ‘조직문화 개선 서베이’에 따르면 잦은 회의와 보고 등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잡무에 치여 본연의 업무에 깊게 고민하고 몰입할 시간이 줄고, 갑작스럽게 회의가 잡히면 자료를 준비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야근도 해야 했다.

실제로 습관적인 야근 근로자는 야근을 전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 생산성이 45%로 정상적인 근로자의 생산성 수치인 58%보다 낮았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근로 시간은 두 번째로 길지만 노동 생산성은 낮다(25위)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일을 오래 한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삼표그룹 또한 구성원들의 고충 해결 및 업무 효율을 높여 워크 스마트를 실현하기 위해 집중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특정한 시간에 유독 집중한다는 것이 낯설겠지만,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 주 52시간제의 정착을 위한 고효율 근무와 건강한 사내문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 제도는 구성원의 근무 만족도를 증대시키고 업무를 조기에 끝내서 개인의 삶의 질까지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❸ 배려에서 시작되다

하루에 두 시간 집중 근무를 위해서는 나와 동료 모두의 배려가 필요하다. 직장인 500명에게 사무실에서 시달리는 소음에 대해 물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가 전화

09:30~11:30 집중 근무제



통화를 포함한 업무 대화도 두 번째는 사적인 잡담 소리였다. 소음은 업무 집중력 감소로 이어지고 심한 경우 짜증을 유발하는 등 심리적 불안감으로 이어진다고 조사되었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업무를 위한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주변 사람을 위해 잡담이나 불필요한 소음을 자제해야 한다. 흡연 등의 개인 용무로 자리를 비우고 업무 공백을 만들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회의나 미팅 또한 집중 근무 시간을 피해 서로가 본인의 업무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은 나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급하지 않은 메신저와 인터넷, SNS 사용을 지양하고 스마트폰을 멀리하자. 나와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이 집중 근무제의 시작이다.

❹ 함께 만들어가는 워크 스마트

누구나 학창 시절에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조용한 면학 분위기는 공부의 능력을 올려주었다. 집중 근무제도 마찬가지다. 독서실과 다른 점은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뿐. 하루에 두 시간 내 사무실이 곧 업무 효율을 높이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소음과 미팅, 통화와 개인적인 용무를 잠깐만 자제하면 오롯이 나만의 ‘업무 골든타임’이 된다.

삼표그룹은 워크 스마트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룹웨어 로그인 시 팝업 창을 띄워 집중 근무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물론 적응과 습관, 정착을 위한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머지않아 집중 근무제의 실익을 모두가 체감하리라 본다. 야근이 줄고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는 워크 스마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❷

무수축성+고유동성, 다양한 시공 목적에 부합하는 특수 몰탈 ‘무수축 그라우트’

삼표산업은 양생 과정에서 수축을 저감시키고 유동성과 작업성을 향상시킨 무수축 그라우트 4종을 출시했다.

안전과 직결된 건설 소재, 몰탈

지난 8월 1일 삼표산업은 '무수축 그라우트 (Non-Shrink Grout)' 제품 4종을 발표했다. 시멘트, 모래, 첨가제로 구성되어 물만 부으면 사용할 수 있는 그라우트는 팽창 성능을 부여해 양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축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번에 출시된 삼표의 무수축 그라우트는 무수축성과 고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블리딩 및 재료 분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수축 그라우트는 주로 기계 기초와 PC (Precast Concrete) 구조물 접합부를 충전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유동성과 충전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블리딩과 재료 분리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PC 기둥의 하단 접합부에 수축 현상이 일어나면 균열이 발생해,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공동(空洞)과 같은 미충전 구간이 생긴다. 그리고 혼합된 몰탈이 물과 분리되는 재료 분리와 블리딩은 양생 후 균열이나 공극(空隙)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은 토목·건축 구조물의 품질과 연관되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삼표 무수축 그라우트는 2016년 취득한 특허(제 10-1671438호, PC 부재 접합부 충전용 무수축 그라우트 모르타르 조성물)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 경쟁사 제품 대비 최대 50%의 수축률을 저감했으며,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해 작업 여건 및 온도 변화에 따른 유동성 변화를 최소화한 제품이다.

삼표는 지난 2014년 몰탈 시장에 뛰어들어 이래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미장용과 조적용 등의 일반 몰탈 10종(포장/별크)을 출시했으며 화성공장, 인천공장에 이어 김해공장까지 가동해 전국을 커버하는 공급 네트워크를 확보했다. 2019년 현재 공급 능력은 연간 210만 톤으로, 시장 진입 5년 만에 국내 2위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삼표 무수축 그라우트 신제품

이번에 출시된 무수축 그라우트 4종의 면면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제품 이름을 압축강도의 숫자와 함께 속성 이니셜로 표기하고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했다. 보급형은 이번에 처음 개발된 신제품이며 일반형, 주입형, 초속경은 기존 제품의 성능을 개선해 재료 분리 저항성 및 균열 저항성을 향상시킨 업그레이드 제품이다. 모두 프리믹스



삼표그룹 몰탈 전문 연구소 '테크니컬 센터'.

삼표 무수축 그라우트 4종사. 왼쪽에서부터 보급형, 일반형, 주입형, 초속경 몰탈이다.

자료 제공 삼표산업 몰탈부문



삼표 무수축 그라우트 신제품 성능

항목		KS 기준(F 4044)	SG 45N	SG 60P	SG 70S	SG 80ES
물 사용량	%	—	16~18	17~19	17~19	16~18
	ℓ / 포	—	4.00~4.50	4.25~4.75		4.00~4.50
염화물 함량(kg/㎡)		0.3 이하	0.3 이하			
유하 시간(초)		60 이내	60 이내			—
플로(mm)		225 이상	225 이상		250 이상	225 이상
블리딩률(%)		0.5 이하	0.5 이하			
팽창 높이(%)		0.4 이내	0.4 이내			
응결 시간 (시간)	초결	1 이상	1 이상			0.5 이내
	종결	10 이내	10 이내			1 이내
압축 강도 (N/㎠)	3시간	—	—			21 이상
	1일	7 이상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35 이상
	3일	18 이상	20 이상	35 이상	40 이상	45 이상
	7일	24 이상	35 이상	50 이상	55 이상	50 이상
	28일	35 이상	45 이상	60 이상	70 이상	70 이상

*위 내용은 KS에서 규정한 기준(대기온도 21℃, 상대습도 60%)에 의거해 측정한 결과이며, 현장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Premix) 제품으로 시공이 간편하다. 특히 새로운 패키지의 우측 상단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사용 방법 및 주의 사항 영상'을 간편하게 재생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시공법을 이해할 수 있다.

보급형(SG 45N) 고강도를 요구하지 않는 구조물에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무수축 그라우트. 블리딩 및 재료 분리 현상 없이 무수축성을 발현한다. 일반 기계 기초, 그라우팅 공사, PC 부재 조인트 충전, 앵커 볼트의 고정 및 각종 구조물의 보수에 적합하다.

일반형(SG 60P) 유동성과 강도 발현 특성이 우수한 무수축 그라우트로, 무수축성·고강도성·고유동성으로 충전 효과가 우수하며 재료 분리 현상이 없다. 대형 기계류의 기초 및 패드 그라우트, 교량의 슈(Shoe)·반침대·신축이음매(Expansion Joint), 그리고 각종 레일의 고정 부위와 앵커 볼트의 고정 및 구조물의 보수 등 고강도 확보가 필요한 부위에 사용 가능하다.

주입형(SG 70S) 이름처럼 주입 용도에 걸맞게 유동성이 우수한 동시에 고강도 특성과 충전성을 갖고 있다. 물론 블리딩·재료 분리 현상 없이 무수축성을 발현해 안정적인 고강도를 발휘하기 때문에 내충격성, 내진동성이 요구되는 PC 슬라브와 PC 충전 시 원활한 주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초정밀 기계류의 기초, 교량 하중 지지부, 슬라브 그라우트, PC 구조물 접합부 충전에 적합하다.

초속경(SG 80ES)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실용 강도가 나와 긴급 시공 및 보수를 가능케 하는 무수축 그라우트, 콘크리트 모체와의 접착력이 우수하고 블리딩·재료 분리 현상 없이 무수축성을 발현한다. 콘크리트 표면·바닥·벽체의 긴급 보수, 교량 신축 이음매·상판의 긴급 보수, 그 밖에 조기(早期) 강도 확보가 필요한 현장에 사용된다. **S**

삼표 무수축 그라우트 기술세미나 : 영남지역 “고성능과 사용 편의성 모두 만족”

삼표그룹은 특수 몰탈 신제품 4종 출시와 함께 제품 성능을 시연하는 행사를 가졌다. 8월 6일에는 김해 몰탈공장에서 영남지역 기술세미나를 열고 제품 특징점과 함께 성능 테스트를 시연했다.



김해 몰탈공장에서 열린 삼표 무수축 그라우트 신제품의 첫 번째 기술세미나에는 삼표그룹 임직원과 특수 몰탈 전문 대리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술세미나는 8월 1일 출시된 특수 몰탈인 삼표 무수축 그라우트 4종 소개 및 기술 시연회를 위해 마련됐다. 김해 몰탈공장의 생산 라인 견학, 거래처 간 네트워킹 형성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무수축 그라우트 몰탈은 시멘트와 모래, 첨가제(특수 혼화제) 등이 일정한 비율로 혼합돼 있어 현장에서 물만 부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몰탈이다. 유동성은 물론 주입 성능이 좋아 작업성이 우수하고, 수축 없이 안정적으로 강도가 발현되며, 내구성 또한 뛰어나다. 따라서 플랜트 등 대형 건설 현장에서 기계 기초 공사나 구조물 기초 충전, 연결부 공간을 채우는 공사 등에 주로 사용된다.

이날 세미나에서 삼표는 건축물의 안전성 제고가 강조됨에 따라 고성능 자재인 그라우트 몰탈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미나 발표 및 제품 소개를

맡은 삼표산업 몰탈마케팅팀 담당자는 “노후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무수축 그라우트 몰탈 같은 특수 제품 수요가 크게 증대할 것”이라며 “특수 제품 다각화, 영업망 확대 등을 통해 무수축 그라우트 몰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석한 관계자들은 삼표가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완성한 새로운 패키지에도 관심을 보였다. 삼표 무수축 그라우트 신제품은 모두 패키지에 QR코드가 인쇄돼 있다.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QR코드를 스캔하면 삼표 SOLO 홈페이지에 연결돼 몰탈 사용법을 시연하는 동영상도 볼 수 있다. 기술세미나 현장에서도 참석자들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동영상 재생을 확인했다.

삼표그룹은 몰탈 관련 연구개발



↑ 삼표 무수축 그라우트는 KS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성능을 제공한다.

(R&D)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석·박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몰탈 전문 연구소인 ‘테크니컬 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고객 수요와 건설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건설사와의 공동 연구, 해외 선진 업체와의 협업 등도 꾀하고 있다. 고객 맞춤 서비스 도입도 눈길을 끈다. 삼표는 업계 최초

로 몰탈공장에 무인 자동출하 시스템을 적용했다. 전산으로 주문 내역과 출하 목록이 관리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출하할 수 있어 건설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삼표그룹 몰탈사업부 최장현 상무는 “생산 라인 증설, 기술력 제고, 특수 제품 라인업 확대, 영업망 확장 등에 박차를 가해 업계 선두 주자로 올라설 것”이라며 몰탈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S**

↓ 기술세미나 참석자들은 제품 패키지의 QR코드로 간편하게 재생되는 ‘사용 방법 및 주의 사항 영상’에 큰 관심을 보였다.





삼표 무수축 그라우트 기술세미나 : 경기·충청지역 “좋은 제품으로 점유율 확대 노력”

삼표그룹은 경기·충청지역 기술세미나를 통해 건설 자재 관계자들에게 신제품 무수축 그라우트의 테스트를 실제로 시연하며 다양한 용도로 출시된 4종의 신제품 성능에 자신감을 보였다.

앞서 열린 영남지역 기술세미나에서 삼표그룹 관계자는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에서도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8월 27일 삼표그룹은 서울 서대문 삼표 리빙센터에서 경기·충청지역 특수 몰탈 전문 대리점 관계자 50여 명을 초대해 삼표 무수축 그라우트 성능 시연회를 겸한 두 번째 기술세미나를 열었다.

첫 번째 기술세미나와 마찬가지로 행사의 주인공은 신제품 4종이었으며, 세미나 현장에서 실제로 제품에 물을 섞어 플로 테스트와 유하 시간 측정 등 다양한 시험이 진행됐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무수축 그라우트는 2016년 특허 등록된 ‘PC 부재 접합부 충전용 무수축 그라우트 모르타르 조성물’ 기술을 활용해 개발됐다.

삼표 무수축 그라우트는 강도 및 용도에 따라 각각 ‘SG 45N’ ‘SG 60P’ ‘SG 70S’ ‘SG 80ES’라고 명명됐다. SG는 삼표 그라우트(Sampyo GROUT)를 의미하며, 45·60·70·80이라는 숫자는 재령(몰탈 타

설 후 경과 일수) 28일 기준 최소 압축강도(MPa: 메가파스칼) 값을 뜻한다. 마지막 문자 N·P·S·ES는 용도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의 이니셜로 각각 범용(Normal)·패드(Pad)·슬리브(Sleeve)·속경(Early Strength)을 뜻한다. 즉 SG 45N은 몰탈 타설 작업 28일 후 45MPa 이상의 압축강도를 발현하는 범용 제품이라는 의미다.

각 제품의 특성을 간단히 요약하면, 먼저 SG 45N은 고강도를 요구하지 않는 부위에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보급형 제품이다. 일반 기계 기초 공사나 구조물 기초, 연결부 공간을 채우는 그라우팅 공사 등에 최적화됐다.

일반형 제품인 SG 60P는 대형 기계 기초, 패드 그라우트용으로 적합하다. 각종 레일, 앵커 볼트 등을 고정할 때에도 적용된다. 유동성이 좋아 몰탈을 붓고 다지는 작업량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인건비 절감, 작업 시간 단축 등이 기대된다.

SG 70S는 유동성이 우수해 PC 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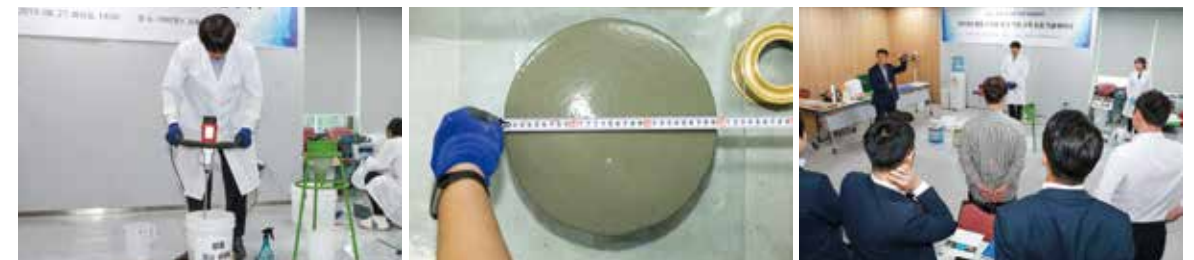
리브 등 좁은 공간에서 충전이 편리하다. 재령 28일에 70MPa 이상 강도가 발현되는 만큼 외부 충격·진동에도 강하다.

긴급 보수 공사에는 SG 80ES가 제격이다. 사용 3시간 만에 21MPa 이상의 압축강도가 발현되기 때문이다. 기본 구조물과의 접착력이 뛰어나 교량이나 콘크리트 표면·바닥·벽 등 보수에 요긴하게 쓰인다.

기술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삼표 무수축 그라우트의 각종 테스트를 지켜보고 KS 규격을 훨씬 상회하는 성능을 확인했다. 예컨대 플로 성능의 KS 기준은 225mm 이상, 유하 시간은 60초 이내다. 이에 비해 현장에서 실제 테스트한 SG 45N의 경우 플로 성능은 300mm 가까웠고 유하 시간은 30초에 불과했다. 참석자들은 자신 있게 제품 성능을 실연하는 삼표의 기술세미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삼표그룹 몰탈사업부 최장현 상무는 “후발 주자로서 점유율 상승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목표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3



↓ 제품 시연은 적절한 양의 물 혼합에서부터 플로, 유하 시간 등의 성능 테스트로 진행됐다.



우수한 품질로 업계 선도하는 삼표시멘트 “첨단 설비·친환경 관리 시스템 자랑”

오늘날 제품 품질을 규정하는 요소는 그 자체의 성능이 전부가 아니다.

제조하고 관리하는 제반 공정과 시스템 모두가 품질관리 영역이다. 급변하는 친환경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삼표시멘트의 우수한 품질과 시장경쟁력은 그러한 바탕에서 출발한다.

삼표시멘트는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서는 등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삼척 장미축제 때 오십천 너머로 바라본 공장 전경.



우수한 경쟁력의 바탕, 친환경 품질

어떤 제품이든 가장 기본적인 경쟁력은 품질이다. 우리가 쉽게 접하고 사용하는 일반 소비재의 경우 품질은 피부로 와 닿는다. 자동차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는 소비재가 아닌, 건축물과 시설이라는 최종 제품의 재료가 되는 건설 기초 소재라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껴서 품질을 파악하기 힘들다. 사람의 안전 및 복지와 직결되는 건설 소재 품질의 중요성은 소비재에 비할 바가 아닌 만큼 분명한 품질 기준이 없을 리 없다. 시멘트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으로 규정된 화학적·물리적 성능 기준이 존재한다.

국내 건설 소재 시장을 선도하는 삼표시멘트는 이미 1966년에 KS 규격(KS L 5201)을 인증받은 이래 1997년 ‘해외건설 자재품질심사증명’을 획득(일본 국제시험센터)하는 등 우수한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글로벌 표준화가 대두된 1990년대에는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및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 2006년에는 OHSAS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취득했다.

삼표시멘트는 현재 품질관리를 위해 첨단 전자동 감시·제어 설비는 물론, 통계적 품질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자동 시료 채취기에 의한 분석과 그 결과에 따른 공정 제어로 품질 편차를 줄이고 유동성이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삼표시멘트의 친환경 품질 경영 원칙은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에 부응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도 기업의 사명으로 이어진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삼표시멘트의 궁극적인 시장경쟁력이 완성된다.

플라이애시 표준 개정에 즉각 대응

품질 기준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유동적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플라이애시(Fly-ash) 기초 소재에 KS L 5405:2018 규격이 개정·적용되었다. 플라이애시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연소 후 발생하는 분말 상태의 재를 가리킨다. 화력발전소 배기 계통(굴뚝)에 설치한 집진 장치로 포집하는 이 미립자 화분(灰分)은 시멘트는 물론 몰탈과 레미콘 혼화재 등으로 재활용된다.

개정된 플라이애시 KS 규격은 이처럼 건설자원 재활용에 필요한 품질 항목과 기준치 등을 규정한 산업표준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MgO’ ‘총 P₂O₅’ ‘수용성 P₂O₅’ ‘Cl’ ‘총알칼리’라는 5가지 품질 항목의 신규 도입 및 항목별 기준치 설정 등이다. 여기서 MgO와 P₂O₅는 각각 산화마그네슘과 인산염(포스포러스 펜톡사이드)이라는 무기물이며,



1 환경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시멘트 소성 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저감을 포함한 다양한 저감 태세를 즉각 시행한다.
2 석탄 화력발전소의 연소 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플라이애시 적재 저장.

이는 염화물을 가리킨다. 총알칼리는 전알칼리라고도 하며 물질 내 모든 알칼리 성분의 양을 탄산칼슘의 양으로 환산한 값이다.

새로운 규격의 개정에 따라 삼표시멘트 품질팀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예컨대 신규 항목 중 수용성 P₂O₅를 분석하기 위한 시험기구 및 장비 등을 지난해 미리 준비해 두고 표준 개정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바로 분석이 가능토록 추진해 곧바로 KS 표준을 100% 만족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플라이애시를 제품으로 판매하는 타사의 경우 수용성 P₂O₅ 분석은 보통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는데, 결과값을 얻는 데만 몇 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자체 분석이 가능한 삼표시멘트 품질팀은 고객들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제품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어, 고객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플라이애시 표준 개정에 따른 신규 시험 방법을 도입하는 데 그동안 고생한 품질팀 화학실 시험 연구원(김광영, 이재복, 정훈, 서창범)은 “타사와는 달리 자체 분석이 가능하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신규 시험 방법을 안착시킬 수 있어 기쁘다”라고 전했으며, 덧붙여 “공인기관보다 더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분석 결과값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도 앞장서

시멘트의 품질 면에서 최근의 국제적 트렌드는 단순히 제품의 화학적 조성과 물리적 성능을 넘어 제조 과정에서부터 친환경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다. 나아가 통상적인 환경 친화적 공정뿐 아니라 긴급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했다. 시멘트

제조, 고체 발전, 석유 정제, 1차 금속 산업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내 배출량 저감을 통한 대기 질 향상이 목적이다.

이러한 비상저감 조치는 초미세먼지(PM 2.5)가 당일 50 $\mu\text{g}/\text{m}^3$ 를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50 $\mu\text{g}/\text{m}^3$ 초과가 예보되거나 초미세먼지 주의보(75 $\mu\text{g}/\text{m}^3$)가 발령되었을 때 시행된다. 각 사업장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 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의 효율 향상 등을 통해 배출량을 저감하며 시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15시간이다. 환경부는 TMS(Telemonitoring Systems) 배출량 측정기 및 적산전력계 등을 통해 비상저감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삼표시멘트는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

되면 시멘트 소성 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저감, 시멘트 분쇄 시설의 가동 시간 조정, 살수차 운영 시간 확대, 차량 2부제를 시행해 배출량을 저감한다. 저감 태세가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이메일 및 문자를 통해 각 부서에 상황을 전파하는 상황 전담반도 운영한다. 각 부서는 설비 가동 시간을 조정하는 등 계획된 사항들을 이행해 배출량을 저감한다. 또한 임직원의 적극적인 차량 2부제 참여를 유도해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국가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한다.

삼척공장 비점오염 저감시설 가동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은 공업용수 수질 개선의 일환으로 후문 펌프실 옆에 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시설을 설치해 가동 중이다. 비

점오염 저감시설은 공장 내 배수로로 유입되는 용수 중에 불특정하게 포함된 오염 물질을 제거·정화하는 설비를 말한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공사비 19억원을 들여 설치한 신규 설비는 7×18m 규모로, 수(水) 처리 능력은 하루 2만8800톤이다.

이 시설을 통해 삼척공장은 후문 수(水)처리 설비의 정제 부하를 줄이고, 우천 시 우수(雨水) 기본 정제 처리 후 외부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됐다. 나아가 양질의 공업용수가 각 설비에 공급됨으로써 냉각 효율 향상 및 설비의 돌발 고장률 감소로 이어져 가동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전관리팀은 계속해서 배수로와 침전조 정비 및 설비 보완 등을 통해 수질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신분석장비를 선제 도입하는 등 올해 개정된 플라이애시 관련 새로운 KS 표준을 민첩하게 만족시킨 삼표시멘트.

삼표시멘트 품질팀장 이수동 부장 인터뷰 “시멘트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끌 것”

품질 관련 업무 경험과 팀장으로서의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삼척공장에 입사한 이래 생산, 공정, 신규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해왔습니다. 물론 품질 실무 업무도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경험한 결과, 개인적으로는 품질팀이 공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다시 품질팀에서 일하

고 싶었던 차에 때마침 품질팀장이라는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원했던 기회가 온 거죠. 덕분에 가까운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생산 및 품질 업무 경험을 토대로 품질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팀장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삼표시멘트만의 품질 강점은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삼표시멘트는 타사 제품에 비해 37가지의 특별한 강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높은 강도입니다. 타설 후 7일에서 28일에 이르기까지 강도 증진을 및 시멘트 콘크리트 장기 강도가 우수합니다. 두 번째, 고유동성입니다. 고객이 건축 현장에서 타설 시 시멘트 유동성이 우수해 작업성이 월등합니다. 세 번째, 3



↑ 미래를 향한 품질 경쟁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삼척삼표시멘트 공장의 야경.

성분계 콘크리트 단위수량 감소가 우수합니다. 타설된 콘크리트 위로 물이 분리돼 떠오르는 블리딩 현상을 줄일 수 있고 시공성이 향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삼표시멘트는 타사 제품 대비 경쟁력이 우수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품질과 성능에 초점을 맞춘다면 삼표시멘트를 찾는 고객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품질팀에서도 지금의 강점을 더욱 끌어올리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편차를 줄여 고객들이 삼표시멘트를 직접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고품질 시멘트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시멘트 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나요?

최근 뉴스에서도 보도했듯 시멘트 시장의 미래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건설경

기 침체 등으로 인해 시멘트 산업 또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건설경기가 호황이 될 수도 있는 여지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시멘트 시장의 흐름과 기업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폐합성수지, 페타이어, 슬러지 등 AF(Alternative Fuel: 대체 연료) & ARM(Alternative Raw Material: 대체원료)

의 사용량이 점차 증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삼표시멘트 역시 환경친화 기업으로 확고한 위상을 세우고, 더불어 그러한 부문에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대비해 품질팀에서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인수(引受)검사 강화 등을 통해 적합한 품질의 AF & ARM의 사용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공정 조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시멘트 산업은 더 이상 과거의 클링커와 시멘트만을 생산해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며, 점차 산업 부산물 등을 재활용해 환경적인 면은 물론 기업의 수익 증대 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 삼표시멘트가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삼표시멘트 모든 임직원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



이선호 삼표산업 레미콘부문 대표이사 인터뷰

“최전방위 사업부라는 사명감으로 지속적인 성장 견인할 것”

삼표에서 성장한 이선호 대표이사가 삼표산업 레미콘사업부를 이끌게 되었다.

이선호 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장별로 차별화된 영업 전략을 통해 매출 목표를 달성하고, 첨단 기술을 도입하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했다.

삼표산업을 이끄는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30여 년 동안 회사의 미래를 위해 땀 흘리며 생활했던 정든 고향 삼표그룹을 아쉽게 떠나 동중사에서 5년 동안 또 다른 차원의 경영 전략 등을 경험하며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 후, 다시 고향의 품으로 되돌아와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항상 제 가슴속에서 그리워했던 삼표그룹의 동료 및 선·후배님들과 함께 21세기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삼표그룹의 일원으로 다시 열정을 다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회장님 그리고 경영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레미콘사업부 임직원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현재 경기 하락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항상 새로운 도전을 통해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경영 철학을 갖고 계신지요?

저의 경영 철학은 ‘목표를 지향하자’입니다. ‘창조적인 품질 혁신으로 항상 고객을 지향하고, 혁신적인 생산성 증대를 통해 기업 가치를 향상시켜 건자재 시장에서 독보적인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하자’는 것입니다.

레미콘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과거 3~4년간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레미콘 시장이 호황이었지만, 2017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레미콘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은 그동안 꾸준히 주택이 공급되어 보급률이 110% 정도로 과공급 상황입니다. 반면에 수도권은 아직도 주택 및 상업 시설 등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합니다. 향후 수도권과 지방의 레미콘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내용은 이선호 대표이사 인터뷰 내용입니다.]



↑ 삼표를 고향으로 생각하는 이선호 레미콘부문 대표이사(위 사진)는 종종 젊은 직원들을 선배와 후배 관계처럼 대한다(왼쪽 사진).

대표이사로서 임직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건설경기 하강에 따라 레미콘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 레미콘사업부가 삼표그룹의 최전방위 사업부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경쟁사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레미콘사업부의 임직원 모두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하나 되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한다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창조혁신을 통해 더욱더 차별화된 역량을 확보하여, 국내 최고의 기업을 만들도록 노력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올해 레미콘사업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하락으로 레미콘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 레미콘사업부의 목표는 3년 연속 1000만㎡ 판매 달성입니다(1㎡=1루베).

올해부터 시작한 M/T 차주들의 격주 토요일무제에 따른 공장 가동률 감소 그

리고 건설 현장에서 타워 및 철근 콘크리트 작업자들의 문제로 인한 공정 지연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삼표그룹의 최전방위 사업인 레미콘사업부 임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셨는지요?

레미콘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수도권과 수요 하락이 예상되는 지방의 시장 상황에 맞도록 각각 차별화된 영업 전략을 수립해 판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올해만의 단기 성과에 치중하지 않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자재 입·출고 관리 자동화 시스템, 자동 배차 시스템, 출하 통합 시스템, FMS 관리, OP 무인 자동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고객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우리 레미콘사업부가 꾸준히 질적·양적 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5**

삼표그룹 풋살동호회 정기모임 방문기 블루풋의 열정은 식지 않는다

‘실내 축구’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풋살은 단순한 미니 축구가 아니다.

삼표그룹의 블루풋(BlueFoot)이 단순히 운동만 즐기는 풋살 동호회가 아닌 것처럼.



추석 명절을 앞둔 월요일,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퇴근 후 하남 스타필드 옥상 경기장에 모인 열정적인 블루풋 회원들.

9월 9일 오후 8시 하남 스타필드, 월요일이라 그런지 평소와 다르게 하남 스타필드는 여유가 넘쳤다. 주말만 되어도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기억 때문에, 한가로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지인과 함께 가볍게 차 한잔 마신 후 경기장이 있는 스타필드 옥상으로 향했다. 경기 시간에 맞춰 운동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선수들을 만날 수 있었다.

평일 업무에 임한 뒤 퇴근 후 모이는 자리이기에 아무래도 참석률은 생각보다 저조할 것이라 생각했다. 더군다나 그날은 날씨도 좋지 않았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알뜰하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퇴근 시간에 겹치고 날씨도 짙窸다 보니 풋살 동호회원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 것이라 추측했다. 주최자도 아난데 나도 모르게 걱정이 되었다.

옥상 경기장에 도착해보니 기우였다. 이미 스무 명 남짓한 블루풋 회원들이 몸을 풀고 함께 장비를 옮기며 곧 다가올 시험에 분주하게 대비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얼마나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까 궁금해졌다.

평소에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하나요?

김홍석 대리 현재 활동하는 회원 수는 50여 명입니다. 오늘은 마침 새 유니폼을 나눠주는 날이라서, 날씨가 좋지는 않지만 평소보다는 많은 25~30명이 참석했습니다.

블루풋에 참여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김홍석 가입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풋살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김홍석 평소에 운동을 좋아했어요. 마침 회사에도 풋살 동호회가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 근무하나요?

김홍석 아닙니다. 경기도 화성 몰탈공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럼 오늘 퇴근하고 참석한 건가요?

김홍석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주 블루풋 활동에 참여하나요?

김홍석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부서 내에 다른 블루풋 회원이 있나요?

김홍석 많아요. 부서 내 60% 정도는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매달 서울이나 하남으로 올라오려면 힘들 것 같은데, 대단하네요.

김홍석 집이 근교라서 큰 부담은 없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이, 나머지 회원들도 속속 도착해 몸을 풀거나 피자와 음료수 등의 음식으로 요가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새 유니폼이 도착했다. 슬슬 경기가 시작되는 분위기. 먼저 블루풋 회원들의 단체 사진 촬영이 있었다. 경기장에 도착하기 전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곳은 날씨에 월요일이라 다들 피곤했을 텐데도 그들의 열정은 대단했다.

블루풋은 정기 모임 당일의 참여 인원에 따라 7대 7, 8대 8로 두 팀을 구성, 경기

를 치른다. 오늘은 참여 인원이 많아 3개 팀으로 나눠 한 팀씩 먼저 시작하고, 이긴 팀이 계속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경기가 치러졌다. 경기가 시작되자 여유롭게 몸을 풀던 경기 전 모습과 달리, 오로지 축구공에만 몰입하는 회원들의 열기에 필자 또한 경기에 집중하게 됐다.

첫 경기가 끝나고 승리한 선수들은 여운을 즐기며 그라운드에 남아 있었고, 경기를 지켜보며 몸을 풀던 다음 팀이 경기장에 들어갔다. 경기를 마치고 나온 선수 한 명과 두 번째 인터뷰를 가졌다.

경기 잘 봤습니다. 경력이 얼마나 되나요?

김영진 대리 5년? 4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하.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근무처는 어디인가요?

김영진 삼표산업 물탈품질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블루풋 정기 모임 말고 다른 업체나 지방 인원들과도 교류가 있나요?

김영진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교류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국레미콘 팀과 경기를 했습니다.

혹시 삼표그룹 내에서 동호회 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영진 급여에서 동호회비로 1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회사 차원에서 지원해준다고 들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면 회사 생활에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김영진 역시 교류와 소통이겠죠. 타 부서 사람들과도 교류가 되고, 같은 부서 내 사람들과는 더욱 친밀감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게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김영진 딱히 아쉬운 점은 없는데, 한 가지 꼽자면 샤워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크게 다친 적은 혹시 있나요?

김영진 다행히도 아직까지 크게 다친 경험은 없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니 풋살이란 종목이 꽤 과격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다친 적이 없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다치지 않고 운동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중에도 큰 슈팅 소리와 주변의 응원 소리, 서로 주고받는 격려와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스타필드 옥상 경기장은 우중충한 날씨와는 다르게 뜨거운 열정이 느껴질 정도였다.

경기를 지켜보는 동안, 한 경기를 마치고 나와 쉬면서 간식을 즐기고 있는 회원들이 필자에게도 같이 먹자며 음료와 피자를 손에 쥐어줬다. 서로 웃고 즐기는 그들의 모습에, 방금 김영진 대리와의 인터뷰 내용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계속해서 여러 경기를 지켜보니, 시



매달 정기모임을 열고 운동으로 소통하는 삼표그룹 풋살 동호회 블루풋은 현재 50여 명의 회원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Info

풋살이 뭔가요?

풋살(Futsal)은 FIFA에서 공인한 실내 축구의 한 형태다. 풋살이라는 명칭은 '실내 축구'를 뜻하는 포르투갈어 'Futebol de Salão', 혹은 스페인어 'Fútbol Sala'에서 유래했다. 풋살은 골키퍼를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대결하는 스포츠다.

수시로 선수 교체가 가능하며, 보통 축구공보다 작은 규격의 공(4호)을 사용해 축구보다 더 빠른 플레이를 보여준다. 경기규칙은 대체로 축구와 비슷하다. 다만 축구에 비해 그라운드 규격이 상당히 작고, 아외가 아닌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축구와 다른 점도 존재한다. 우루과이에서 1930년대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축구가 별도로 발전했다. 이처럼 소규모 실내 축구는 남미 전역에서 널리 유행했으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어린 축구선수들에게 기본기, 개인기, 정교한 패스 및 빠른 상황 판단을 가르치기 위해 풋살 경기를 장려하는 경우도 많다.

삼표 블루풋 회원 모집

블루풋의 골문, 아니 회원 가입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 김환수 차장(02-6270-0744)에게 문의하시길.

삼표그룹 화성·하남·양주·안양·서울·대전·대구·부산·인천·수원·전주·광주·제주

작부터 눈에 띄는 선수가 있어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저는 팀은 나오지만 승리한 팀은 남아 다음 경기를 치르는 진행 방식이라 첫 경기가 시작한 뒤 시간이 꽤 지나서야 그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밖에서 경기를 꼭 지켜봤어요.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던데, 혹시 '선출'인가요?

정덕신 대리 선수 출신은 아니고, 운동을 좋아해서 여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풋살 말고 어떤 운동을 또 즐기나요?

정덕신 구기 종목은 가리지 않고 해요. 한때 골프도 쳤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멀리 화성에서 온 회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덕신 대리는 어디서 근무하나요? 혹시 화성?

정덕신 저는 경기도 양주에서 왔습니다.

화성만큼 양주도 멀지 않나요? 월요일에는 다들 월요병, 월요병 하는데, 블루풋 회원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덕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주, 화성, 그리고 서울에서도 여러 곳의 여러 부서에 포진해 있는데 많이들 참석하죠. 오히려 주말에 운동하는 것보다 평일이 더 좋은 면도 있습니다. 하하.

양주에서 오려면 일찍 출발했겠네요.

정덕신 다행히 팀장님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동호회 활동에 많은 배려를 해줍니다. 물론 근무 시간 '팽팽이'는 아니에요. 오늘도 정상적으로 오후까지 근무를 마치고 온 겁니다.

오늘 경기한 회원들 중에서 제일 눈길 많이 가서 경기 후에 꼭 인터뷰하려고 기다렸습니다. 블루풋 회원들은 다들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운동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회원들에게 불만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살짝 물어봤지만, 그 누구도 회사나 모임에 대한 애로 사항을 말하는 이가 없었다. 샤워 시설의 부재를 포함해 퇴근 후 경기를 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현실에 대한 아쉬움 외에는 다들 그룹 내 동호회 활동에 만족하는 모습이었다.

블루풋 정기 모임은 보통 저녁 8시에 시작해 2~3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각자 귀가한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월요일,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날에도 하남 스타필드 옥상 경기장에 모인 회원들은 그들만의 친밀한 열기를 뿜어냈다.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그들의 모습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봤지만 당일 MVP는 뽑지 않는다고 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대단함을 느꼈다. '삼표'라는 회사에서도 그들 각자가 그러한 열정으로 써 내려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블루풋이라는 이름도 삼표 마케팅팀에서 지어줬다고 하니, 그룹에서도 그들의 열정을 알고 있으리라. 그들이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에서 느껴진 열정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 **5**

토박이의 포항 자랑 “풍광명미의 도시 포항을 느껴보세요”

산과 강, 바다가 어우러진 도시 포항.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면서 문화 자원이
풍부한 관광지로도 손꼽힌다. 포항 토박이로 살아온
(주)에스피네이처 이석우 대리가 자기 고장을 소개하고자 나섰다.

에스피네이처는 맑고 깨끗한
자연을 위해 철스크랩 사업을
펼친다. 슈레더에 공급할 폐차
야적장 앞에 선 이석우 대리.



온 가족의 삶이 깃든 곳

북쪽으로 태백산맥의 여맥이, 동쪽으로 영
일만과 동해가 자리 잡고 있는 풍광명미(風
光明美)한 포항에 에스피네이처 이석우 대
리가 산다. 포항에서 태어난 그는 다섯 살 때
까지 잠시 경주에 살다가 다시 포항으로 돌
아온 토박이다.

경영관리팀에서 환경자원 부문을 담
당하고 있는 그는 월간 관리 손익을 산출하
고 계획과 다르게 부족한 부분의 원인을 분
석해, 이를 토대로 피드백을 전달해 목표 손
익 달성을 유도한다. 또한 회사 내의 인적·물
적인 불합리 요소를 찾아내고 수정해 원가
절감을 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재무회
계 업무에 관심을 가진 후 회계 자격증을 취
득해 에스피네이처에 정착한 그는 오늘도 모
두의 일이 원활유를 바른 기계처럼 순탄하
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대리는 자신의 평생 터전인 포항
의 매력을 지리적 특징에서 찾는다. 산과 강,
바다가 주는 풍부한 자원이 포스코와 현대
제철 등의 기업을 불러 모아 대한민국 최고
의 공업 도시로 만든 것이다. 그 회사들은 포
항 시민을 위해 다양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
며 기업과 도시, 사람이 함께 상생하는 곳으
로 발전시켰다. 포항에서 삼표그룹은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철스크랩과 환경
자원 등의 관련 사업 분야 관계자를 통해 차

츄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7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 4년 차가
된 이 대리는 결혼 전에도,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지금도 포항의 명소에서 여유를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 연애 시절 아내와 함께 장엄
한 일출의 감동을 목도했던 호미곶과 아이들
과 함께 불꽃 축제를 즐긴 영일대 해수욕장
은 그가 첫손에 꼽는 관광 명소다.

템플 스테이가 가능한 내연산 보경
사, 단풍 좋은 운제산에서 고즈넉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오여사, 예쁜 카페가 많은 오
도리도 포항에 온 사람들에게 그가 추천하
는 곳들이다. 짭짤한 맛이 일품인 구룡포 과
메기도 놓칠 수 없는 별미. 아이가 있다면 과
메기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도 추천한다고.
204km로 길게 뻗은 해안도로는 멋진 드라
이브 코스다. 곳곳에 위치한 해수욕장 중 마
음에 드는 곳에 차를 세우고 바닷바람을 맞
으면 피로가 모두 풀린다고 한다. 이것이 일
출부터 일몰까지, 불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포항을 이 대리가 추천하는 이유다. **9**

9 이석우 대리가 추천하는 포항의 명소



① 호미곶

일출을 감상하기 좋은 호미곶은 거대한 예술
작품 '상생의 손'으로 더욱 유명하다. 왼손은
육지에, 오른손은 바다에 설치된 상생의 손은
모든 국민이 서로 도우며 살자는 뜻에서
조성되었다. 해맞이광장 진입로에는 매년
4~5월이면 흐드러지는 유채꽃 단지가 있다.



② 영일대 해수욕장

호미곶 인근 해변을 따라 상권이 발달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국구' 해수욕장으로
발전했다. 6~7월에 영일대 해수욕장 또는
형산강 체육공원 일대에서 '포항 국제 불빛
축제'라는 불꽃놀이가 거행된다. 언제든 근사한
포항이지만 이때 여행 오면 더욱 좋다.

미소를 부르는 소중한 추억
나의 어린 시절

사진은 순간을 기록하는 용도 이상의 것이다. 찍는 당시 추억도 담는다. 사진 한 장으로
영화 한 편을 능가하는 추억의 영상을 재생하기 위해 해묵은 앨범을 펼쳤다.



최은순 대리
(주)삼표시멘트 총무팀

제목: 쌍둥이 자매. 관동팔경 중 하나로 자연과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삼척 죽서루 정자 앞에서 세 살 무렵 찍은 사진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찍어주신 소중한 사진으로, 제 보물 1호입니다. 저는 일란성쌍둥이인데
어느 쪽이 저일까요? (왼쪽 사진은 현재의 모습)



김민선 대리
(주)삼표산업 송도공장 영업과

추석 때 친할아버지 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안겨 있는 아기가
100일쯤 된 겁니다.^^;
(위 사진은 현재의 모습)



허철웅 과장
(주)삼표시멘트 관재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그네 타며 즐거웠던
추억의 사진입니다(저는 세 살). 딸을 바랐던
부모님께서서 아이들을 딸처럼 키우셨대요.^^



서동욱 차장
(주)에스피네이처 경영관리팀

어릴 때는 집에서 젓소 기르는 것이
창피했었는데,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성장한 저를 돌아보니 과거에 창피해
했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김지수 사원
(주)삼표산업 자원개발2팀

어릴 적부터 너무나 잘 먹어서 늘
우렁아였습니다. 사진은 김치만 놓고도
밥통째로 밥을 먹던 다섯 살의 저입니다.



문효주 사원
(주)에스피네이처 중기기술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족과 놀러 간
놀이공원에서 누나와 처음 타본 관람차에서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장덕신 대리
(주)삼표 D/T 북부물류영업소

일상에 찌들어 걱정 없이 웃은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질 않는 요즘, 어릴 적 순수한 미소를
보며 근심 걱정을 떨쳐보려고 합니다. 해맑은
웃음으로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차현우 대리
(주)삼표산업 재무팀

때는 1991년. 바야흐로 여섯 살이 된 저는
부모님과 용인 '자연농원'을 처음 가봤습니다.
회전목마와 바이킹을 타며 울었던 게
생각납니다.



박순현 사원
(주)삼표산업 전기팀

제목: 남자판 신데렐라. 새 신을 신고 놀이공원에
갔는데 그만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모든 채 싹 웃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나중에는
신발 잃어버린 걸 알았다고 하시네요.



한정협 대리
(주)에스피네이처 영천사업소 영업팀

1991년 유치원 재롱잔치입니다. 저는
'영터리종합병원'의 비주얼 담당(!)인 의사 역할을
맡았네요. 영화 <씨니>에서도 쓰였던 배경음악
'Touch by touch'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ㄹ

레미콘 품질 예측과 자동생산 가능한 AI·ICT·스마트 팩토리까지 레미콘업계, 4차 산업혁명 ‘젠걸음’

삼표산업을 비롯한 레미콘업계의 ‘빅3’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이다. AI 및 ICT 기술을 적용해 원자재 품질 관리·출하 모니터링은 물론 레미콘 품질 예측과 자동생산까지 가능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나서고 있다.



최신 기술로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건설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레미콘업계가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젠걸음이다. 정보통신 기술(CT)과 인공지능(AI)을 공장에 도입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23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삼표는 ICT 기술을 적용한 ‘통합운영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에 산재한 27개 레미콘 공장의 개별 출하실을 5개 권역으로 묶어 이를 관리하는 시스

템이다. 기존에는 각 공장 출하실에서 레미콘 원자재 입고와 출하 배차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제는 통합운영실에서 실시간으로 권역 전체 공장에서의 생산하는 정보를 취합해 생산 과정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레미콘 원재료인 골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업무 속도가 빨라지고, 인력을 생산이나 품질 개선 분야에 우선 배치하는 등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AI 기술을 활용해 공장에 들어오는 골재 수량과 품질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골재 수량과 품질을

육안으로 파악했지만 이제는 공장 출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시 기술로 분석, 골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레미콘 생산 과정에 활용한다.

삼표 관계자는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레미콘 공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공정 과정에 ICT와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며 “통합운영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화에서도 치열한 경쟁

유진기업은 레미콘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 리버티사와 손잡고 레미콘 공장의 모든 공정 과정을 자동화할 계획이다. 공장에서 생산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품질 예측 관리와 자율 생산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유진기업 기술 연구소는 일부 공장별로 운영하던 자동화 시스템을 ▲측정 시스템 구축 ▲품질 예측 시스템 ▲자동 배차 등 53개 자체 연구 과제로 세분화하고 수준별 4단계로 나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가 완성되면 레미콘 원자재 입고부터 생산, 출하까지 전 과정 자동화로 생산성이 높아짐은 물론 각 공장별 원가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유진기업 측의 설명이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공장별 자동화와 모니터링 수준에 머물고 있는 레미콘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개념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기술을 완성해나갈 것”이라며 “2022년까지 기술 개발을 완료해 유진기업과 동양의 모든 공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산업은 계열사인 IT 기업 아주큐엠에스를 활용, 공장에 챗봇(ChatBot)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등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한 챗봇은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레미콘 출하 내용을 확인하고 납품 규격, 주수량, 주문 대수, 배차 간격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출하실과 전화 통화로 확인했던 출하 정보를 메신저에서 대화하듯 확인할 수 있다. RPA 솔루션은 레미콘 품질 시험 결과 입력, 출하 생산 투입량 확

인, 운반 거리 비교 등 기존에 품질관리 직원이 일일이 확인하던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진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아주산업 관계자는 “IT 계열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레미콘 산업에 적용하고, 필요하면 협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표산업은 ‘통합운영실’ 구축으로 생산 효율 제고를 꾀하고 있다.

“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레미콘
공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공정 과정에 ICT와 AI
기술을 적용한 ‘통합운영실’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다만 하반기부터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서고 있고, 신안산선 착공 등 건설경기 호재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반등 가능성도 일부 점쳐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환경 규제 등 악재가 겹치는 상황이지만 하반기부터 건설사 분양과 공공 건설 수주가 이어지면서 반등 조짐도 보인다”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려는 업계의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2019년 8월 23일자 9

삼척시와 삼표시멘트의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자원 순환 삼척 생활 쓰레기 매립량 하루 40톤 줄어든다

최근 삼표시멘트는 생활 쓰레기 중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해 자원 순환을 도모하는 연료화 전처리 시설을 준공해 삼척시에 기부 채납했다. 폐기물 자원 순환을 위한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다.



삼척 매립장에서 열린 생활 폐기물 연료화 전처리 시설 준공식. 전재섭 삼척부시장, 문종구 삼표시멘트 대표, 김민철 부의장, 김상용 도의원, 김명숙·김억연·김희창·양희전 시의원, 정희수 삼척상의회장, 지역 기관·단체장, 삼표시멘트 직원 등이 참석했다.

가연성 생활 폐기물 선별해 연료로 재활용

삼척지역 생활 쓰레기 매립량이 하루 40톤가량 줄어든다. 삼척시와 삼표시멘트는 지난 9월 24일 삼척 매립장에 '생활 폐기물 연료화 전처리 시설'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설은 지역 상생협력 차원에서 2016년 3월 향토기업인 삼표시멘트와 삼척시가 '폐기물 자원 순환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삼표시멘트는 기계 설비 설치에 20억 원을 투입해 24일 준공식을 갖고 시설을 시에 기부 채납했다. 연료화 전처리 시설은 시가 맡아 운영한다. 소각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만 선별, 파쇄해 연료화하면 이는 다시 삼표시멘트 석회석 생산과정에 보조 연료로 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다. 이번 전처리 시설의 본격 가동으로 매립 쓰레기 가운데 하루 40톤가량이 줄어들게 됐다.

삼척에는 삼척 매립장을 비롯해 모두 4개 매립장이 199만㎡의 매립 용량을 갖춰 운영 중이지만, 이번 전처리 시설 설치 가동으로 잔여 매립 용량이 65만㎡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막대한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삼척시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5300톤 규모로,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되고 있다. 문종구 삼표시멘트 대표는 "생활 폐기물 연료화 전처리 시설은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 파쇄해 연료화한다"고 말했다. 전재섭 삼척 부시장은 "각 가정에서 생활 폐기물 배출 시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폐간지 등을 철저히 분리 배출해야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강원일보〉 2019년 9월 25일자 5

연료화 전처리 시설이란?



이번에 삼표시멘트가 기부 채납한 연료화 전처리 시설이란 어떤 것일까? 생활 쓰레기 중에서 불에 타는 것을 재활용해 연료로 사용하기 용이하게끔 가공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활용 연료는 시멘트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수입 유연탄을 일부 대체하게 된다. 생활 쓰레기를 선별하고 파쇄·분쇄하는 설비와 시설 등으로 구성된 전처리 시설은 삼척시 재활용 선별장 내에 설치됐다. 처리 규모는 하루 70톤으로, 삼표시멘트는 앞으로 삼척시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중 연간 1만8000톤(5억4000만

원 상당) 규모를 무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삼표시멘트는 이 사업을 계기로 시멘트 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이미 유럽에서는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상용화돼 시멘트 산업의 친환경 가치 실현 및 사회적 책임 완수라는 측면에서 인정받고 있다. 유럽연합(EU)도 2018년 5월 'EU 순환경제 패키지' 법을 승인하면서 시멘트 소성로를 활용한 순환 자원 활성화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 등에 따르면 유럽의 시멘트

소성로의 대체연료 사용 비율은 41%인데, 독일은 무려 65%에 달한다. 반면 국내의 대체연료 사용률은 약 20%로 독일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시멘트 소성로의 내부 온도는 최대 2000℃에 달해 900℃에 불과한 소각로와 달리 폐기물의 완전 분해·연소가 가능하다"며 "소성로를 활용해 다양한 가연성 폐기물을 유연탄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어 자원의 순환 이용과 유연탄 사용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 진작과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시험검사 숙련도 경연대회 개최



① — 삼표그룹 50여개 사업장이 네 가지 부문에서 경쟁

삼표그룹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삼표그룹 시험검사 숙련도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삼표산업 통합품질실험센터에서 치러진 이번 경연대회는 품질 담당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품질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편차의 최소화를 위해 실시됐다. 통합품질실험센터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한 바 있다. 경연대회에 참가한 사업장은 그룹 내 레미콘, 골재, 기초 소재, 몰탈, 시멘트는 물론 콘크리트(2차 제품)까지 추가된 총 50여 곳으로 이전보다 규모가 커졌다. 경연은 레미콘, 골재, 분체, 콘크리트의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평가는 정확도와 정밀도를 바탕으로 부문별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심사 결과는 그룹 계시판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며, 수상한 사업장은 계획된 포상을 지급받는다. 대회를 주관한 품질기획 담당 박민용 상무는 "삼표 전 계열사가 참여한 대회라 지난 대회보다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경연대회는 지난 대회에 비해 품질 담당자들이 우수한 성적을 보여줘 품질 시험 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했다. 이에 차기 대회에서는 이전보다 다양한 시험을 통해 시험검사에 대한 실무 능력 확보와 데이터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세계로 향하는 삼표시멘트 국내 최초 세계 시멘트 협회 가입



② — 삼표시멘트 WCA를 통해 시멘트 기술과 시장 동향 정보 교류

(주)삼표시멘트가 국내 동종 업계 최초로 세계 시멘트 협회(World Cement Association, 이하 WCA)에 가입했다. WCA는 2016년 영국에서 설립되어 전 세계 시멘트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28개국 48개의 회원사가 속해 있다. 각 회원사는 WCA를 통해 시멘트 산업 관련 기술과 세계 시장 동향 등 시멘트 산업에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교류한다. 삼표

시멘트는 WCA 가입을 통해 세계 시멘트 산업 동향을 파악하여 중·장기 사업 전략을 구상하고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영국 언론도 삼표시멘트의 WCA 합류 소식을 전했다. 영국의 시멘트 전문지인 〈인터내셔널 시멘트 리뷰〉는 "삼표시멘트는 연간 1100만 톤의 생산 능력과 매년 약 100만 톤의 수출 실적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시멘트 기업"이라며 "앞으로 WCA가 삼표시멘트의 사업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빈센트 레페브레 WCA 회장의 환영사

를 보도했다. 이에 삼표시멘트는 WCA 가입을 통해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국내 시멘트 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삼표시멘트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2019 WCA 콘퍼런스'에 참가해 WCA 회원사로서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곳에서 회원사들과 함께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 질소산화물 저감 대책, 대체연료 수급 전략 등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전국의 영업팀이 한 곳에 모이다 삼표시멘트 영업본부 워크숍



③ — 삼표시멘트 실적 격려와 시기 진작 위해 1박 2일 동안 진행

(주)삼표시멘트는 삼표그룹 경주 연수원에서 7월 11일부터 이틀간 '시멘트 영업본부 워크숍'을 진행했다. 문종구 대표이사와 영업본부장, 4개 지사 15개 팀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은 상반기 실적 리뷰 및 하반기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CRM, 영업지표 관리, 품질 교육 등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종구 대표이사는 상반기 실적 우수팀과 업무 우수자를 격려하며 영업팀의 사기를 북돋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양동마을 해설가와 함께 세계 문화유산인 경주 양동마을을 견학하며 우리나라 전통 가옥과 마을이 형성되는 과정을 듣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간도 가졌다. 영업본부 워크숍에 처음 참석한 서울 영업팀의 남광현 사원은 "이번 영업본부 워크숍을 통해 소속감이 더욱 커졌으며, 하반기에는 나 자신과 팀 모두 회사의 목표와 정책을 이해하고 영업 활동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에 흩어져 근무하는 영업본부 특성상 오랜만에 모인 구성원들은 회사의 목표를 공유하고 각 팀의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④ — 삼표시멘트 시멘트 운송선 '삼표 5호' 명명식

(주)삼표시멘트는 7월 15일 '삼표 5호' 명명식을 시행했다. 2018년 국내 최대 시멘트 운송선 '삼표 1호' 취항 이후 11번째 시멘트 운송선이다. 삼표시멘트는 해상 운송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만큼 지속적인 운송선 확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 활로의 용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물류비용 감소, 운송 정상화 등의 효과와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예정이다. 명명식은 삼표시멘트 문종구 대표이사에 이어 임원진과 삼표 5호 선장·기관장의 헌작으로 안전 기원제를 지낸 후 선박 명명장 수여, 선박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⑤ — 삼표산업 성동구 주민 행사 후원

(주)삼표산업 성수공장은 2015년부터 성동구 주민을 위한 복지기금을 후원하고 있다. 올여름에는 성동구립 성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한 '이웃과 함께 하하호호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에 운영비 일부를 후원했다. 독거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어르신 100여 명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는 웃음 치료 레크리에이션과 삼계탕, 불고기 등의 영양식이 제공됐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손 마사지와 네일아트 등의 체험 부스를 운영해 참여자들에게 즐거움을 더했다. 성수공장은 앞으로도 성동구 주민을 위한 후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⑥ — 에스피네이처

예산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사과 후원

(주)에스피네이처 예산사업소가 지난 9월 10일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사과 50박스를 후원했다. 지역사회를 위해 사랑의 물품을 지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예산사업소는 2017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에 물품 후원을 하고 있다. 예산사업소 이종삼 소장은 “지역 내 어려운 장애인들과 명절의 정을 나누고자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며 “이번 나눔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관의 임덕규 관장은 “매년 명절마다 잊지 않고 장애인들을 위해 후원해주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⑧ — 에스피네이처

철스크랩 화성사업소 이전

(주)에스피네이처의 철스크랩 화성사업소가 지난 8월 6일 사업장을 화성시 비봉면에서 남양읍으로 이전하고 국만호 대표이사 및 철스크랩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진행했다. 화성사업소는 철스크랩 20만 톤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에스피네이처의 일반 스크랩 사업장 가운데 가장 활발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개소식에서 국만호 대표는 “수도권은 철스크랩 발생이 많은 시장”이라며 “시장 변화에 따른 경쟁력을 갖춰 화성사업소를 기점으로 수도권 2호점, 3호점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하면서 철스크랩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⑦ — 엔알씨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

(주)엔알씨가 9월 25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정인욱학술재단과 함께 3000만원의 장학금을 연천군에 전달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장학금 기부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학업에 정진하지 못하는 연천군 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엔알씨는 소외계층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매년 '삼표와 그린(Green) 지구 청소년 체험활동' 또한 진행하고 있다. 강흥구 엔알씨 대표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 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⑨ — 에스피네이처

한국도로학회 학술대회 참가

(주)에스피네이처가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0주년 한국도로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해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아스팔트의 골재 면이 젖어 있을 때 부착력을 높이는 동시에 한번 부착한 아스팔트가 외부의 힘이나 비와 눈 등의 작용에 의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계면활성제 제품인 '박리방지제'의 우수성을 알리고 회사를 소개하는 홍보 활동을 벌였다. 한국도로학회 학술대회는 매년 실시되며, 올해에는 50여 개의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400여 명이 참석해 에스피네이처의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9

입사를 환영합니다!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일	비고
(주)삼표	D/T팀 화성주유소 대외협력2담당 사업지원팀 시스템2팀	김정근	기능	2019년 07월 01일	
		김상훈	상무보	2019년 08월 26일	
		안태욱	차장	2019년 08월 26일	
		최인후	5남	2019년 09월 02일	
삼표레일웨이(주)	오송공장 생산기획팀	서필훈	기능	2019년 07월 15일	
(주)삼표산업	생산기획팀	정희창	5남	2019년 09월 02일	
	선박운영팀	민승제	선원	2019년 09월 02일	
	선박운영팀	손춘식	선원	2019년 09월 06일	
	선박운영팀	전재영	선원	2019년 09월 06일	
	선박운영팀	김대승	선원	2019년 09월 02일	
	서부공장 관리과	윤석산	기능	2019년 06월 10일	
	서부공장 영업과	김동영	대리	2019년 08월 01일	
	성수공장 영업과	이호진	대리	2019년 07월 01일	
	송도공장 관리과	전혜미	기능	2019년 06월 01일	
	아산공장 품질과	임민구	6남	2019년 07월 22일	
	안성공장 관리과	김지환	기능	2019년 07월 01일	
	안양공장 품질과	장희경	5남	2019년 07월 22일	
	양주공장 관리과	문경훈	기능	2019년 07월 15일	
	인천공장 관리과	양찬혁	기능	2019년 08월 12일	
	사업개발1팀	장명석	차장	2019년 07월 11일	
	협력관리담당	옥창현	상무	2019년 07월 01일	
	화성물탈공장 생산팀	제봉길	기능	2019년 07월 22일	
	RM팀	강희웅	5남	2019년 06월 17일	
(주)삼표시멘트	법무팀	변재휘	과장	2019년 07월 22일	계열사 전입
삼표피씨엔지니어링(주)	상품기획팀	조현익	5남	2019년 06월 17일	
	설계영업팀	김형태	부장	2019년 07월 01일	
삼표피앤씨(주)	콘크리트안전팀	박동학	과장	2019년 06월 10일	
	콘크리트안전팀	김선규	과장	2019년 08월 01일	
	공사수행팀	이진훈	부장	2019년 06월 03일	
	공사수행팀	김광수	부장	2019년 09월 23일	
	마케팅2팀(콘크리트)	박연상	부장	2019년 06월 01일	
	원기관리팀	정영배	부장	2019년 06월 20일	
	제천공장생산팀	전두민	기능	2019년 06월 03일	
	제천공장생산팀	장기철	기능	2019년 06월 19일	
	콘크리트기획팀	양성은	차장	2019년 08월 01일	
	품질관리팀	이도환	과장	2019년 06월 17일	
(주)에스피네이처	광주공장 관리과	장두영	기능	2019년 07월 22일	
	동서울공장 품질과	최기선	5남	2019년 09월 02일	
	단양생산팀/현장	오영기	기능	2019년 08월 01일	
	단양생산팀/현장	함경열	기능	2019년 08월 01일	
	당진Slag공장 생산팀	김봉규	기능	2019년 09월 09일	
	당진Slag공장 생산팀	임재건	기능	2019년 09월 09일	
	안성정비	조성현	기능	2019년 07월 29일	
(주)청암	이동정비	정덕영	기능	2019년 08월 01일	
(주)청암	남양주공장 품질팀	오선균	6남	2019년 07월 22일	
(주)팬트랙	연마유지보수팀	김상문	기능	2019년 07월 31일	
	연마유지보수팀	윤주현	기능	2019년 06월 25일	



건설 기초 소재 리더의 위용
차량번호 인식을 포함한 무인
자동출하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갖춘
삼표산업 김해 물탈공장.

독자퀴즈

Q1 지난 8월 삼표산업은 이름 그대로 무수축성과 함께 고유동성을 보장하는 '삼표 000000' 4종을 출시했습니다. 양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축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해 작업 여건 및 온도에 따른 유동성 변화를 최소화한 삼표의 특수 몰탈은 무엇일까요? (p.16 참조)

㉠ ㉡ ㉢ ㉣ ㉤ ㉥



Q2 우리 그룹이 업무 효율과 성과를 높이고 개인의 워라밸 또한 실현하기 위해 시행하는 워크 스마트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다른 방해 없이 자신의 고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p.14 참조)

㉠ ㉡ ㉢ ㉣ ㉤



두 문제의 정답을 이메일에 적어 11월 31일까지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3만원권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정답을 보내주실 때에는 이번 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또는 앞으로 <삼표가 GREEN 세상>에서 다루길 원하는 내용을 함께 적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응모 홍보팀 김미미 사원(kmm@sampyo.co.kr)



사업부별 소식을 보내주세요

그룹 내 뉴스를 보다 발 빠르게 전하기 위해 사보 <삼표가GREEN 세상>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 사업부별 단산 뉴스를 모집합니다. 삼표 가족에게 알리고 싶은 생생한 소식을 공유해주세요. 보내주신 뉴스가 사보에 게재되는 경우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보 홍보팀 이선화 대리
(sh8853@sampyo.co.kr)
홍보팀 김미미 사원
(kmm@sampyo.co.kr)

지나호 퀴즈 정답

- Q1 삼표레일웨이
- Q2 워크 스마트

당첨을 축하합니다

(주)삼표산업 설비엔지니어링팀
이진수 사원
(주)삼표산업 총무팀
황현주 대리
(주)삼표산업 총무팀
이춘혜 사원
(주)삼표시멘트 자금팀
서형석 사원
(주)삼표시멘트 인력팀
김정희 사원